

'생산비 줄이고 수확량 그대로'

군산시, 적극행정 추진 노력 '결실'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서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20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5대 항목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과 노력을 종합 심사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왔다. 군산시는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6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군산시는 실행계획 수립부터 중점 과제 선정, 성과 점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책 장터 <우리들의 군산> △전통시장 배송 엠 <시장을 방으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청도 낭만여행 프로젝트>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온 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조지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 혁신 노력도 돋보였다.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했고, 선정되지 못한 사례 발표자에게도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동기부여 체계를 마련해 전 공직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제도 개선과 우수사례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적극행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참여위원회 확대 운영과 현장 중심의 중점과제 발굴 등 참여 기반의 행정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드문모심기·직파재배 등 신기술 전파... 재배면적 85% 확산해 연간 84억 절감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드문모 심기'가 지역 농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 이에 더해 직파재배와 병해충 방제 지원 등으로 지속가능한 영농을 책임지고 있다.

익산시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로 8년차를 맞은 '드문모심기' 영농이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등 지역에서 효과를 거두며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문모심기 시범사업을 도입해 농업 현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로 지난해까지 28억 원을 투입해 64개소, 2,000ha 규모의 생산단지를 조성했다.

드문모심기는 모판의 범식 파종량을 증량하는 대신, 기존 면적 당 이앙 포기 수와 벼 한 포기당 심는 모의 본수를 줄여 육묘 상자 수를 최대 70%

까지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이다. 노동력과 생산비를 크게 절감하면서도 수확량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드문모심기 재배 시 병해충까지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신동진 품종으로 재식밀도별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10a당 쌀 수확량(정곡기준)이 37주 490kg, 42주 490kg, 50주 511kg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생산한 벼의 80주 생산량은 460kg으로 병해충 발생이 많아 수확량이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력과 생산비 경감도 큰 성과다. 농촌진흥청 분석에 따르면 드문모심기를 적용할 경우 10a당 생산비는 약 6만 3,500원 절감된다.

시는 전체 벼 재배면적 1만 5,680ha 중 약 85%에 해당하는 1만 3,300ha에 드문모심기를 도입, 연간 약 84억 원의 생산비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전면 확대 시 10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모내기철이면 육묘상자·상토·종자 준비부터 파종 작업, 육묘상 관리로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은 드문모심기로 노동력을 크게 줄이고 있다. 또한, 시는 드문모심기에 이어, 노동력과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벼 직파재배 기술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2개소, 31ha 규모의 시범 단지를 조성하고, 연시회·평가회를 통한 홍보로 기술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기존 직파재배 면적은 70ha로 추정되며, 2027년까지 500ha를 목표로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주요 공약사업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대선공약·국가예산 대응 보고회' 개최... 주요 대응 전략 공유

익산시는 그동안 발굴한 주요 공약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내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점검에 본격 돌입했다.

익산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현을 시장 주재로 '대선공약 및 국가예산 대응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시장과 국·소·단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해 주요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간 발굴한 공약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제·개정, 정부계획 반영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공약에 대한 대응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사업은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왕궁 자연환경 복원 프로젝트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세계유산 백제왕궁 역사문화벨트 조성 △부여~익산 고속도로 조기 착공 △재난안전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이다. 이와 함께 각 정당에 제안했던 △청년 올인원(All-in-One) 타운 조성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 △전주권 광역철도 구축 △정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등 주요 사업들도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또 시는 각 부처의 2026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

부처 예산(안)에 미온적으로 반영된 사업은 타당성을 보강하고 논리를 보완하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긍정적 반응을 얻은 사업은 추가자료와 필요성 설득을 통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신베이시, 상호 초청·방문... 화합과 우의 다져

시 대표단, 신베이시 '2025 월드 마스터스대회 폐막식' 초청받아

군산시는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을 대표로 한 대표단이 교류 도시 신베이(新北·New Taipei)시의 '2025 세계(雙北) 월드 마스터스대회' 폐막식에 초청되어 친선 방문을 마쳤다고 4일 전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이번 방문은 2023년 군산시 대표단의 '2023 신베이 친등 축제' 개막식 초청에 따른 첫 번째 방문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 군산시는 신베이시의 교류 도시 대표로 축제에 참가했다.

폐막식 참가에 앞서 대표단은 신베이시를 방문하여 신베이시 류허린(劉

和然) 부시장과 간담을 진행했다.

군산시 김영민 부시장은 초청에 감사하며, 신베이시와의 교류 협력 다변화를 위해 공보(교류·홍보), 관광(축제), 도서관, 도시재생, 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상호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주얼리 뿌리산업 프로젝트 돌입

산업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3개년 과제 선정 사업비 12억 투입... 기술력 강화·인재 양성 기반 마련

보석의 도시 익산이 주얼리 산업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다지기 위한 3개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익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5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년 협업형 선도단지 과제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공모 선정으로 총사업비 1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익산 주얼리 산업의 제조 기술력을 강화하고, 산업-교육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익산시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수탁자인 (주)패션산업시험연구원 주관하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 주얼리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산·학·연 협력으로 단순한 교육을 넘어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

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습 기회와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올해 '주얼리 뿌리기능경기대회'와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능경기대회와 공모전은 청년 인재들이 기술력과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 공정한 평가와 포상을 통해 자긍심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익산 주얼리 뿌리산업에 특화된 단체표준 개발을 추진해 지역 내 생산 제품의 기술 신뢰성과 품질 경쟁력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개발센터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익산이 주얼리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금강미래체험관, 환경의 날

'환경 히어로 챌린지' 추진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이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문제에 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제4회 환경교육주간을 이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예정이다.

올해 환경교육주간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으로,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라는 주제 아래 연령 별 맞춤형 교육과 체험형 프로그램 등 학생과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군산직족초등학교에서는 5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교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초록별 미션 대장전'이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나바다 장터 △친환경 체험 부스 △환경 챌린지 △용기 내 챌린지 등으로 재미와 환경보호 인식 개선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체험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위해서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폐현수막을 이용한 '생활용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슬기로운 문화놀이터'

주말마다 다양한 체험 가득

익산시 증매서 커뮤니티라운지가 주말마다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문화놀이터로 변신한다.

익산시는 오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증매서 커뮤니티라운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슬기로운 문화놀이터'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슬기로운 동네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오후 1시부터 약 100분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공연과 체험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참여는 익산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빠른 응답, 이른바 쿼일(QR)코드 또는 전화(010-4807-5241)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